

2010년 오리산업 전망

1. 서언

2008년 발생된 HPAI로 인하여 잔뜩 움츠렸던 오리업계는 정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2009년에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각업체에서 자발적인 생산량 조절,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소비홍보사업 등 오리업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9년은 오리업계에는 굵직한 정책 사업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2008년부터 추진된 종오리 D/B사업의 본격 추진과 종축관리의 초석인 종오리 등록제 시행과 함께 종오리 검정 및 종축개량기관 지정, 일반 검정업무 추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오리사육단계 HACCP 기준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9개 대표품목육성조직 선정,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늦춰졌던 원종오리 사업도 뒷심을 발휘하여 전남 장흥에 부지를 선정하고 전라남도와 MOU를 체결하는 등 2011년부터는 종오리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교육을 위한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오리산업 종사자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 생산·공급을 도모하고자 저희단위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

산관측에 오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한편, 우리협회가 몇 년간 계속해서 통계청에 오리 통계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성과로 통계청의 오리산업 통계조사가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첫 발을 뗀 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 발맞춘 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2009년 오리산업 결산

가. 생산실적

(1) 도입현황

2009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28.8%감소하였고, 2분기는 3.9%감소하였으나 3분기에는 47.4%상승하였다. 상반기에는 2008년 발생된 HPAI로 인한 종오리 도태 및 생산량 감축, 2008년 수매되었던 계열 및 일반 물량의 소진 등의 영향으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가 줄어들었던 외식업소가 다시 늘어나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도입량이 점차 증가됨을 볼 수 있다. 2009년 1월~11월의 도축실적은 48,992천수로 전년 동기대

【표 1. 전국 오리 도축현황】

(단위 : 천수, %)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8	3,830	3,323	4,429	4,633	5,296	5,062	4,355	3,719	3,372	3,661	3,080	3,654	48,414
2009	2,464	2,535	3,360	4,004	4,830	5,574	5,935	5,521	5,411	4,764	4,594	4,754	48,998
전년대비	-35.6	-23.7	-24.1	-13.6	-8.8	10.1	36.3	48.5	60.5	30.1	49.1	47.7	1.4%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표 2. 오리고기 수입현황】

(단위 : kg/EA)

년도	육류(kg)		기타육산물	기타육산물 수입량(EA)
	오리간	오리고기		
2008년	8,700.6	32,848.8	296,620.2	338,169.6
2009년 1~11월	6,979.8	10,749.5	15,315.6	33,044.9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비 약 9.5% 상승하였으며 2009년도 총 도축량은 53,000천수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상최대의 도축량을 기록할 것이다.

(2) 수출입현황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 및 태국 등은 HPAI 상시 발생국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오리고기 수입이 중단되고 있어 오리고기의 수입량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며 환율상승으로 열처리 가금육도 거의 수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는 오리털 및 오리털 가공품만 수출이 되고 있고 오리고기는 1월~11월까지 1.5톤 오리육가공품이 수출된 것이 전부이다. 오리고기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일본은 국내 발생된 AI로 인하여 수입금지되었다가 12월초에 해지되었으나 국내 재래시장에 유통중인 가금에서 저병원성 AI가 발견되어 다시 중단된 상태이다.

(3) 종오리 사육 및 새끼오리 생산

종오리 사육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산란오리 사료량을 보면 2009년 1월~11월까지 34,880톤으로 전년 동기동안 생산된 31,736톤으로 1.8%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08년 하반기에 도태된 종오리가 20만수인 것만을 감안하면 많은 감소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기별 변화를 보면 감소되었던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1/4분기에는 산란오리 사료량은 9,408톤으로 월평균 3,136톤으로 전년 동기 12,253톤(월평균 4,084톤)대비 23.2% 감소, 2/4분기 역시 8,510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 10,474톤(월평균 3,491톤) 대비 18.8%감소하였다. 3/4분기에는 9,402톤(월평균 3,134톤)으로 전년 동기 6,744톤(2,248톤) 대비 39.4%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에 발생되었던 HPAI로 산란중인 종오리 도태가 2008년 3/4분기에 20만수가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3/4분기는 2/4분기에 비해 10.5%상승하였으며 4/4분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종오리 사육물량은 1/4분기에 월평균 362 천수, 2/4분기는 361천수, 3/4분기는 402천수가 사육되었고 이중 페kin종 암컷의 사육물량은 월평균 1/4분기 314천수, 2/4분기 313천수, 3/4분기 362천수, 10 월은 407천수가 각각 사육된 것으로 집계되며 하반기 사육물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종오리DB에 집계된 종오리수(2009.11.30 현재)를 보면 페kin종은 640,955수로 전체 종오리 중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산란하고 있는 종오리는 438,683수(암컷)로 PS는 214,613수(48.9%), F1은

SPECIAL Edition

【표 3. 산란오리 사료 생산량】

(단위 : 톤, %)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8	4,255	4,364	3,634	4,888	3,156	2,430	1,801	2,437	2,506	2,265	2,511	2,776	37,023
2009	3,094	3,072	3,242	3,290	2,674	2,546	2,557	2,957	3,888	3,855	3,705		34,880
전년비	73	70	89	67	85	105	142	121	155	170	148		
전월비	111	99	106	101	81	98	100	116	131	99	96		

※자료 : 한국오리협회

【표 4. 종오리(PS) 월별수입현황】

(단위 : 암컷수기준/마리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7	4,950	6,300	-	20,960	23,900	38,380	5,000	14,200	21,690	37,740	-	-	173,120
2008	13,750	21,570	32,910	23,120	23,060	5,500	13,952	20,000	15,900	10,000	-	-	179,762
2009	2,440	8,520	28,750	31,320	32,570	24,450	29,810	27,350	28,950	25,830	24,150	7,070	271,210

※자료 : 한국오리협회

【표 5. 육용오리 생산】

(단위 : 천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8	5,289	5,348	6,138	6,366	6,194	6,793	5,136	4,614	2,986	3,462	3,640	3,723	59,664
2009	3,714	3,832	4,461	4,482	5,526	5,735	5,429	4,825	4,240	5,253	7,049	6,529	61,076
전년대비	-29.8	-28.3	-27.3	-29.6	-10.8	-15.6	5.7	4.6	42.0	51.7	93.6	75.4	2.4

※자료 : 한국오리협회

224,070수(51.1%)이다. 전체 사육중인 페킨종 종오리수 중 PS의 비중은 2009년 6월 47.7%에서 11월에는 58.8%를 차지하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종오리업 등록제 시행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영국에서 발생된 AI로 체리밸리사의 종오리가 2007년 10월 이후 수입되지 못하다가 2009년 1월 AI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아 2월말 이후 수입이 재개되었다. 도입된 PS는 암컷기준으로 271천수로 전년 대비(180천수) 50.9%증가하였다.

여기서 생산된 페킨종 새끼오리 생산 추정물량은 11월말 현재 총 6천1백만수에 월 5,578천수 내외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3,772천수, 2/4분기 17,756천수, 3/4분기 15,232천수가 생산되어 1분기대비 3분기에 생산이 10.6%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4) 육용오리 생산

육용오리 생산물량은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늘

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며 증가폭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육용오리 생산 추정물량은 61,076천수로 전년에 비해 2.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육용오리 생산량을 보면 1/4분기 12,007천수, 2/4분기 15,743천수, 3/4분기 14,494천수, 4/4분기 18,830천수가 각각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같은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1/4분기는 28.4%감소, 2/4분기는 18.7%감소하였으나 3/4분기에는 13.8%증가, 4/4분기는 73.9%로 큰폭으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외식업소의 증가등 소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나. 오리고기의 소비 및 가격동향

(1) 소비동향

지난해 국내 육용오리 생산량을 기초로 추정된 오리

고기 생산량은 정육을 기준으로 76,343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 오리고기는 가공품을 포함하여 32톤 내외로 집계되었다. 상반기에는 2008년 AI발생으로 수매되었던 계열 및 일반 수매물량과 생산된 물량을 거의 소진하였고 하반기는 전년대비 41%정도 증가된 생산 물량을 재고 없이 소비함으로써 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판단된다. 이는 요식업소 위주의 소비패턴을 가진 오리고기의 소비가 2008년 발생된 AI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심리불안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요식업체가 전업 및 폐업으로 악순환이 거듭되었으나 2009년에는 오리자조금을 통한 PPL광고 및 젊은 소비자층 공략을 위한 대학축제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소비가 되살아나고 다시 요식업체수가 증가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요식업체 위주의 단조로운 소비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유통 매장판매 강화, 단체급식, 홈쇼핑 등 다양한 소비유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열업체의 노력이 소비증대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적인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인하여 외식 및 모임자제 등으로 오리고기 소비에 제한적 요소가 되기도 했으나 적극적인 소비촉진활동, 신종인플루엔자 소강 국면, 경기회복심리의 반영 등의 요인에 의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동향

2009년도 4/4분기 산지 오리 평균가격은 수당 6,200

원으로 전분기 6,836원에 비해 9.3%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10.5%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사료가격과 유류대 인상으로 생산비가 증가된 것이 반영된 것이며, 상반기에는 6,200원대의 생산비로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으나 사료가격의 인하와 오리고기의 소비증가로 인한 육용오리의 가격 인상 등이 조금이나마 경영부담을 덜어주었다.

3. 2010년도 오리산업전망

오리고기 소비에 가장 큰 위해요소인 AI는 정부의 AI 재벌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와 농가에서의 차단방역에 힘쓴데 힘입어 2009년에는 무사히 지나갔으나 야생조류의 분뇨, 재래시장에서 저병원성AI가 검출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증가되는 생산된 물량이 거의 재고 없이 소비되며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이 미미해지고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리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업계를 한층 고무시키고 있다. 하지만 종오리 도태지연, 무절제한 입식은 자칫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업계가 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막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 종오리 및 새끼오리 생산

종오리 사육업계는 전년에 비해서 생산물량이 늘어날 것이라 추정되고 축산법 개정에 따라 PS 중심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종오리 DB에서 조사 되었

【표 6. 육용오리 시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9	6,000	6,482	6,919	6,500	6,919	6,567	6,855	7,000	6,653	6,200	6,200	(6,200)	6,541
2008	5,477	5,300	5,638	5,016	4,590	4,530	5,173	6,000	6,000	5,742	5,500	5,597	5,146
등락 (2009/2008)	9.5	22.3	22.7	29.6	50.7	45.0	32.5	16.7	10.9	8.0	12.7	10.8	

*생체오리 2kg기준, 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던 자료를 보면 페킨종은 '08년에 비해 '09년 입식한 종오리수가 27%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바로 새끼오리 생산의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에 더 이상 F1이 입식되지 않고 78주령을 초과하면 종오리를 도태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사육 중인 종오리와 새로 입식될 PS만으로도 430천수 내외의 산란 종오리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4분기에는 월 평균 7백만수 내외의 새끼오리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축산법 개정에 따라 종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은 의무적으로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오리 일반검정 증명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종오리 사육에 따른 종축업등록을 하는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어 자율적으로 시행되면 종오리 개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이후부터는 종축에서 생산된 종란이 아닌 것으로 부화하는 경우 불법이 됨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9년말 원종오리(GPS)농장 부지를 마련함에 따라 빠르면 2010년말이나 2011년초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PS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PS수급에도 탄력성을 줄 것이며 농가의 생산단가를 낮춤으로 수익구조의 개선 등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다.

나. 육용오리 사육

2008년의 AI로 인해 오리사육을 포기했던 농가들이 사육업을 재개하면서 육용오리 사육농가 및 사육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1/4분기에는 월평균 6,500천수 내외의 육용오리가 출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유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곡물가의 일부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료값 인상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산량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2009년 시행된 오리농장 HACCP기준 중 오리바이러스성 간염(DVH)접종에 대한 부분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등 오리업계의 현실이 반영됨으로써 많은 농가들이 HACCP지정을 받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부분이기에 더욱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 오리 가격 및 경기전망

AI는 오리고기 소비 및 산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차단방역이 잘 이루어져 AI가 재발되지 않는다면 오리가격은 보합세로 유지될 것이라 전망된다.

오리고기 소비는 세계 및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식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소비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계열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외식업소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유통구조를 벗어나 대형유통업체, 흠크링, 단체급식 등 유통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오리고기 소비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판단되며 오리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가능성 및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 오리 유통관련 조사 및 해외시장 개척 방안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증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는 오리자조금으로 TV PPL광고, 지하철광고, 대학교 시식행사 등 소비촉진 활동을 통한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도 구매의욕을 일으켜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에도 오리관련 종사자들의 자조금 거출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